

문화정책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로컬로 턴
vol. 26 / 2024 Autumn

지역과
다양성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KUNYONGA

이|슈

퍼|이|퍼

지역 내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문화다양성 정책, 배리어프리 예술,
포용성과 도시 발전, 세대 간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사상 이주민 반상회와 같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 독자들이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행인 이미연
편집인 박소운
편집위원 김선영 김주현 장혜원 이소민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4. 8. 29.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	
다양성, 지역의 힘 창파 / 실험실 C 아트디렉터	04

이슈	
1. 부산의 문화다양성, 어떻게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가? 정보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07
2. ‘모두를 위한 도시’ 만들기 - 포용성과 포용도시 정현일 /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0
3. 지역의 세대 다양성을 위한 소통과 통합 장정운 /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 역임	13
4. 춤추는 도로서, 어디까지 왔니? - 배리어프리,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서 대표 허경미 인터뷰 박소운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16

사람과 현장	
사상 이주민 반상회 김동규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20

연구보고서 톨아보기	
젠더 다양성과 성별영향평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리뷰 문재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여성학 협동과정 교수	23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6

다양성, 지역의 힘

창과

실험실 C 아트디렉터

사라지거나 단순하거나

지역의 다양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기수역이라 불리는 중간지대에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기수역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하구의 넓은 구역을 일컫는다. 부산에는 510km 길이의 거대한 낙동강이 흐르고 흘러 다대포의 바다와 조우하는 낙동강 하구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대표 기수역이었다. 1987년 하굿둑이 기수역의 순환을 가로막기 전까지, 짘물은 삼랑진을 향해 거뜬히 거슬러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낙동강 하구는 열린 하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¹ 그나마 2019년부터 9번 수문을 정기적으로 개방하면서 기수역의 자정능력(自淨能力)과 생태계 복원을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다행이다.² 실제로 기수역은 담수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이 산다. 사람 역시 기수역 주변에 터를 잡고 기대어 삶을 일구거나 생활사를 쌓아 왔다. 거대한 강 어귀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게 오랜 세월 풍요의 공간이었다. 낙동강 하구는 “섬 대부분이 갈대밭과 습지로 이뤄진 동아시아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으며, “뱀장어, 흰배도라지, 실양태, 뱀땡이, 멸치” 등 수백 종의 어류가 마르지 않던 곳이었다. 강이 운반한 모래에선 “씨알이 굵은 낙동강 재첩”이 자라던 장소였고,³ 기수역 질 좋은 물을 받아 소금가마에서 팔팔 끓여 고운 빛깔의 자염을 굽던 염전도 이곳에 있었다. 지금의 하구는 변했고 생태계는 단순해졌다.

중간지대

단순하다는 건 획일적이고 반복적이다. 갯벌이 매립되고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세워진 명지 지역에서 염전이 운영되던 1950년 지도와 2015년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확실히 드러난다. 기수역은 단순할 수가 없다. 기수역 전역은 짘물과 민물이 섞이면서 여러 가지 염도의 층위가 형성된다. 그 염도는 0.5~30%(퍼밀·1천 분의 1)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계절이나 강수량 등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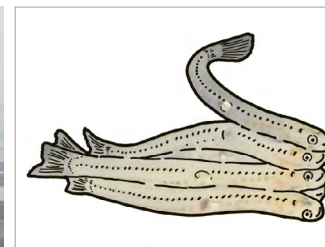
¹ 부산일보(2012.04.24.), “기수역 왜 중요한가”를 보자. 이 기사는 낙동강 하구의 생태를 복원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생생히 전해진다. 나는 기수역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아직 우리 곁에 재첩도 뱀장어도 연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² 한겨레(2024.03.15.), “낙동강 하굿둑은 어느 때나 다 열 수 있을까?”에서 낙동강 하굿둑은 10개의 수문 가운데 9번 수문을 음력 보름과 그믐의 대조기(사리)에 하루 2~4시간 정도 연다. 9번 수문을 통해 대조기에 짘물은 강으로 역류한다.

³ 한겨레, 위의 기사, 일부 인용.

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기수역(汽水域)이란 이름은 염도가 낮은 민물과 염도가 높은 짘물이 교차하면서 서로 다른 농도 차이로 물속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현상을 나타낸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수역을 오가는 생물은 점차 진해지거나 서서히 열어지는 염도에 유연하게 적응해 가며 염분을 조절하는 조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바다와 강 사이에서 일렁이는 물 아지랑이를 넘나들며 경계 감각을 확장한다. 기수역의 독특한 환경은 회유성어류나 염생식물처럼 다양한 초경계자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며, 이편과 저편을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게 하는 완충 지대가 되어준다. 기수역의 저력은 다양성을 유발하는 중간지대에서 나온다. 그곳에는 경계를 넘나드는 초경계자들이 있다.

지난해 낙동강 하구와 기장의 일광천을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리서치하면서 기수역이던 두 곳을 비교해 관찰할 수 있었다. 낙동강 하구는 인공기수역⁴, 일광천은 열린 하천이다. 일광천은 10개 지류가 합쳐져 바다로 흘러간다. 그리고 밀물 때 일광천으로 바닷물이 올라온다. 일광천에는 매년 3월이 되면 바다에서 천으로 올라와서 돌 아래에 알을 낳는 사백어가 등장한다. 사백어는 몸길이 5cm 정도에 투명한 물고기이다. 일광천에서 태어난 사백어의 치어는 기수역에서 자라다가 일광 앞바다 잘피군락으로 돌아간다. 사백어 외에도 낙동강 하구와 일광천에서 먼 바다로 나가 산란하는 뱀장어는 기수역의 짘물에서 바다로의 항해를 준비한다. 사백어와 연어처럼 산란을 위해 민물로 들어오는 회유성어류 역시 기수역에서 민물에 적응해 간다. 기수역이 보여주는 순환은 중간지대의 포용력이라는 놀라운 역할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수역의 풍요로운 생물다양성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하지만 또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나에게 기수역은 다양성의 공간이다. 서서히 뒤섞이고 천천히 적응하며 다른 성질을 받아들이고 매개하는 능력, 이것은 다양성을 일구기 위한 태도이다.



(좌)낙동강 하구 2022
(우)초경계자들 회유성 어류 사백어
(출처 : 실험실 C)

⁴ 신영철(2013), 「4대강 하구의 속성 가치 추정-다항로짓모형에서 IIA가정의 검토와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524. ‘하구순환이 차단된 인공하구’라는 표현에서 가져왔다. 인공하구와 인공기수역은 낙동강처럼 하굿둑이나 보로 인해 자연순환이 훼손된 기수역이란 의미이다.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경계 너머

모든 강은 바다로 모여든다. 하지만 바다로 흐르는 모든 강이 기수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하천은 3,835개, 그중에서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은 463개, 이 중 하구의 순환이 이뤄지는 열린 하구는 단 52%인 235곳에 불과하다.⁵ 1987년 이후 낙동강 하구는 인공적인 하구가 되었다. 짚물의 흐름이 인공적으로 차단되자 어종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일광천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리서치를 위해 일광천을 찾았던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몇 년 전 촬영된 사진 자료에 보이던 갯벌과 습지, 수풀이 우거진 여울은 이미 사라졌다. 물속 사정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하구를 매립하고, 강에 다리를 놓고, 자연공간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만든다. 단일하고 단순한 생태계만이 남게 된다. 이는 지구의 자정능력 상실로 이어진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비인간의 행위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지대에서 도약하기

코스타리카의 열대우림에는 ‘영원한 아이들의 숲(Children’s Eternal Rainforest)’이 있다. 이 숲은 또 다른 중간지대이다. 1987년 스웨덴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열대우림이 위협받는다라는 강연을 들은 아이들은 열대우림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고, 역도대회를 열고, 빵을 팔았다. 아이들은 300달러를 모았고, 약 1만 5천 평의 숲을 샀다. 그리고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난다. 열대우림을 지키려는 아이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것이다. 모금 활동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여, 1992년에는 코스타리카 몬테베르데의 6천8백만 평의 열대우림을 구입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이 숲을 지켜내자, 다양한 식물과 동물 종이 남게 되었고, 코스타리카 정부도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생태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생물종 가운데 50%가 서식하는 곳이며,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인 코스타리카에는 전 세계 동물 종의 5%가 살고 있다.⁶ ‘영원한 아이들의 숲’은 바나나 농장과 목장의 획일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보호된 중간지대에서 다양성의 도약은 시작된다. 다양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다양성은 기수역에도 아이들이 지켜낸 숲에도 지금 당신의 곁에도 있다. 중간지대는 단절된 것을 매개하고 다양성을 연결한다. 기수역의 중간지대가 다름을 섞어가며 여러 층위의 완충지대를 형성하듯이,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중간지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의 속도를 재정립하고 인간 바깥의 세계로 초경계적인 장을 열어야 한다. 그곳의 이름은 아마도 문화 기수역이 될 것이다.

⁵ ibid, 524.

⁶ 유영초(2005), 『숲에서 길을 묻다』, 한얼미디어, 151.

부산의 문화다양성, 어떻게 도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가?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사는 곳은 태어난 국가, 태어난 지역과 같나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나요? 혹시 사투리로 불리는 지역어(방언)를 사용하고 있나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명절이나 기념일 혹은 추모일을 보내는 지역(민족 또는 인종)만의 방식이 있나요?

우리는 사회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저마다의 출신지역과 하는 일, 관행과 습관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이러한 생활 방식, 함께 살아가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UNESCO, 2001)¹, 우리를 형성하는 모든 존재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은 조직이나 사회 내에 여러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체성과 존재방식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는데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은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협약(2005) 이후이다. 이 협약은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 가치와 그것이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게 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75%는 민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차원이고², 무력 충돌의 89%는 문화 간 대화가 부족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³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문화 그 자체의 발전을 넘어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과제이기도 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은 경제 성장과 관련

¹ UNESCO(2001)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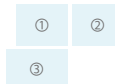
² <https://www.unesco.org/en/articles/world-day-cultural-diversity-dialogue-and-development>

³ UNESCO(2022) Measuring intercultural dialogue for peace and inclusion

된 효과도 인정받고 있는데,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미 조직이나 민간기업에서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에 주목하고 있고, 많은 도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들 : 항만도시, 도시활력과 경제적 성취

도시마다 역사, 지리, 인구특성, 시민사회의 활력 등이 다르다. 다양한 인구를 수용하는 국가들은(이하 예시는 시민의 1/3정도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남) 각국 또는 각 그룹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세계관을 강조하는 교류행사나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노팅힐 카니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DRONGO 페스티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설날 축제와 퍼레이드, 에스닉 페스티벌, 호주 토론토의 카리브 페스티벌, 시드니의 Living in Harmony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코리아타운, 리틀 도쿄, 보일 하이츠와 같이 문화정체성이 녹아있는 구역을 문화적 거주지(Ethnic enclave)로 지정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공식 언어를 4가지(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나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 ① 영국 런던
Notting Hill Carnival 2019
(photo by David Sedlecký, CC BY-SA 4.0)
- ② 호주 토론토
Some drummers hold a jam session near the Caribana parade route
(photo by Loozrboy, CC BY-SA 2.0)
- ③ 미국 샌프란시스코
Year of the Ox Chinese New Year Parade
San Francisco 2009
(photo by David Yu, CC BY 2.0)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지역기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종교적 뿌리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한 도시에 모여들어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도시들의 공통된 점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들은 지리적으로 개방성이 높고 시민의 창의적 역량이 높은 경우가 많다. 모두 항구도시로 물자나 문화의 자유로운 교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지리적, 역사적으로 개방적일 수 있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는 자유와 창의적 활기를 근간으로 혁신적인 재능이 모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는 국제금융과 기술 중심지로서의 성과도 나타나면서 경제적 성취도 거두고 있다.

부산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어디쯤에 있는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만을 가진 항만도시이고,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이 모이면서 형성된 지리적·역사적으로 문화적인 다양성이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산은 앞서 살펴본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 사례를 닮아있다. 항만을 통해 국내외 문물과 문화를 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면서, 도시는 보다 활력을 가지고 문화적, 경제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도 문화다양성이 부산의 발전을 견인한 원동력이자 기회로 보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3개가 있는데 부산광역시도 2017년 전국 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였고, 실질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천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방비를 문화다양성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부산문화재단에 1억 8천만원의 부산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행사(문화다양성의 날, 컨퍼런스),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 지원은 단기간 성과가 드러나기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산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부산이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대표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부산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지역어와 전통적인 관행, 풍습과 같은 문화적인 것들이 미래세대에도 잘 이어지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문화적 산물들의 획일화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므로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고 인지하고 지속되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가치가 문화정책을 넘어 도시개발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매년 최다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역의 일자리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어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이 반영된 도시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점점 더 상호 연결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집단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조치를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더하여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가 결과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를 축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모두를 위한 도시’ 만들기

- 포용성과 포용도시

정현일

국립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포용성의 시대

포용성(inclusivity)은 사회적 배제를 없애야 한다는 가치관, 접근법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에서 배제된 이들, 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다양한 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과 논의를 포함한다. 이러한 포용성은 세계화와 경쟁질서의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세계화와 경쟁질서는 한편에서는 풍요를 가져다줬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배제된 이들을 양산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를 계기로 포용성이란 가치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포용성은 전 세계 보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UN, OECD,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 포드재단, 록펠러재단, 로마 바티칸 등 전 세계 주요 행위자가 포용성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동아시아에서도 포용성은 중요 가치이다. 한국은 2017년 포용적 혁신국가를 국가 아젠다로 제시했다. 중국의 후진타오, 시진핑 주석, 일본의 기시다 내각도 포용성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했다. 포용성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노동시장, 포용적 복지 등 다양한 개념과 정책을 낳으면서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용성의 다양한 세계

그렇다면 포용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포용성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를 감싸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포용해야 할지를 두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사회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논자는 사회적 배제의 책임을 소수자 개인에게 물으면서 현재의 사회구조에는 면죄부를 준다. 이 경우 포용의 의미는 소수자를 재교육하여 ‘자립’, ‘갱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논자는 사회적 배제를 양산하는 불평

등한 사회구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소수자 지원을 포용으로 이해한다.

포용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다. 어떤 논자는 소수자 개인의 도덕 교화나 취업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다른 논자는 소수자의 기본권·사회권 보장이나 복지서비스 혜택, 참정권을 제안한다. 국가마다 포용성은 다르게 해석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도시설 확보, 참정권처럼 최소한의 기본권과 관련된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청년 실업자 등 ‘풍요 속의 빈곤’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는 것과 결부된다.

이처럼 포용성은 다양한 접근, 해석, 정책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포용성을 정치적 용어, 그때그때의 정책 기조 변화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정책적 용어’라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포용성의 특징과 강점

그럼에도 포용성‘들이 공유하는 특징과 강점이 있다. 먼저, 배제된 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은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오늘날 배제된 이를 방치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는 지지받기 힘들다. 반면 배제된 이를 포용해야 한다는 이상은 너무나 당위적이고 단순하며 이해하기도 쉽다. 그렇기에 정치, 경제, NGO,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행위자가 포용성에 관심을 두게 된다.

둘째, 효과적이면서 현실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빈곤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 서만 찾곤 했다. 이에 반해 포용성은 사회-경제-정치-공간-환경 등 다양한 요인 간의 순환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열악한 주거 여건은 이동권과 신체건강을 악화시킨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실업, 빈곤을 낳고 그 결과 이들의 주거는 점차 슬럼과 게토(ghetto)가 된다. 각 요인이 서로에 대한 원인이자 결과이다. 문제의 해결도 이들의 선순환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기존의 정책에 비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게 했다.

포용도시: 포용성과 도시의 만남

포용성을 활용해 도시 발전을 모색하는 도시를 포용도시(inclusive city)라고 한다. 세계화와 경쟁질서는 도시를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 눈부신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평등을 조장하고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에 포용성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시는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는 구체적 공간이자 정책적 실행단위이기에 정책의 기대 효과도 크다. 그러므로 포용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도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 내 소수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참여율을 높인다면 도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을 터이다.

포용도시도 다양한 모습을 띤다. 대표적으로 유엔 해비타트는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에 기반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를 선언하고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 포용도시를 제안했다. OECD는 시장경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수자나 실업자의 고용에 초점을 둔 포용도시를 제안했다.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수원, 대전, 안산, 창원 등 다양한 지자체가 포용도시를 추진했다. 국내 포용도시의 특징은 기존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일반시민, NGO와의 협력을 강조하나 그 토대가 기존의 도시정책이란 점이다. 이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많은 수의 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형성됐다. 청년 취업, 노인 재취업, 외국인 적응, 예술 지원,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등 각종 지원책도 늘었다. 이들 정책은 도시에 머물기 힘들었던 이들을 도시에 머물 수 있게 했고, 소수자와 시민의 역량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도시 발전의 가능성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졸자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투표 참여율, 공원 접근성, 공공기관 CCTV 설치 정책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용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포용성 정책의 이름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이는 포용성의 함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며 기존의 도시정책을 포용성 정책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포용성 그리고 포용도시의 한계: 포섭을 넘어 진정한 포용을 향하여

현재의 포용성, 포용도시에 만족하지 않고 그 너머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사실 포용의 다른 번역어는 포섭(包攝)이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포용성은 소수자를 가르쳐야 할 대상, 시혜의 대상,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곤 했다. 이는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억압과 통제, 동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등한 주체 간의 포용이 아닌 소수자를 억압하는 포섭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포용성의 긍정적 함의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너머를 상상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관계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도시는 우리에게 새롭고 대안적인 집합적 '작품(oeuvre)'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정현일(2023), 『포용도시 담론의 형성과 구조』, 부산대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정현일(2023), 「포용성 담론의 전개와 재편: 신자유주의와 포용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제26권 2호, 93-136.

지역의 세대 다양성을 위한 소통과 통합

장정윤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 역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노인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노인특위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 기여 방안을 다룬다. 윤대통령은 최근 당정대-통합위 만찬서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통합위의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중략)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나이에 따른 차별 해소방안을 통해 세대 간 벽을 낮추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¹라고 한다.

지역사회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올바른 기여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이전에 지역 내 노인의 업무 능력의 쇠퇴,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우선 이해해야 한다. 노년은 능력의 쇠퇴에 대한 저항과 우월해지려는 욕망 그리고 자만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좌절되기 쉬운 시기이다. 더군다나 은퇴한 노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노인 차별주의는 노인의 심리적 불안감과 불확실한 존재감을 낳고 더 나아가 상실감과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조성하기까지 한다. 더군다나 노년의 사회적 참여가 차단되고 노년의 능력과 인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와 시선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지 의심해볼 일이다.

노인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게 된 정책적 제안과 그것의 적극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겠지만 지금 여기 부산지역의 노인과 청년의 공존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¹ 조선일보(2023. 10. 20), “尹이 힘써준 김한길, 노인의 사회적 기여 방안 모색한다”.

몇 달 전 어떤 기사를 읽었다. 예술창작지원금에 정년퇴임한 교수가 지원신청을 해서 많은 액수의 지원금으로 선정되었는데,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는 없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창작 활동하는 데에 있어 신세대의 반응은 다른 점이 보였다. 젊은 시절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인정받았고 정년퇴임을 한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를 묻는 등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느껴졌다. 그동안 쌓여온 세대 간 소통의 부재에도 갈등의 원인이 있겠으나 진정한 예술을 향한 태도가 무엇인지, 양보의 미덕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과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졌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강점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다. 즉 과거로부터 살아온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높고 그 의미를 깊게 파악할 줄 안다. 그들의 풍부한 정신활동에서 얻는 현실적인 지혜를 젊은 층과 나눌 수 있는 상담이나 멘토링에 활용한다면 상호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노인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용해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삶을 갈망한다.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는가 하면 현대 사회의 새로운 기술에 맞는 사고방식과 협력체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배우며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노년의 의미, 변화에 기반해서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키고 이용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노령화로 접어든 부산의 현실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대안으로 원로 예술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들은 젊은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락을 경험한 인생 체험, 그것을 예술적 기량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²라고 하였다. 원로 예술인들의 사회봉사와 기여의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자존과 삶의 보람을 찾게 해서 “신세대와 구세대가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세대 간의 단절도 대화나 소통으로 극복하게 되어 세대 간의 조화를 일구어내는 거점 공간이 부산예술회관이 되리라 믿는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³ 부산의 문화는 인적 자원의 충분한 활용과 상호에서 변별력 있는 창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둔 생각이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거점 공간은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거점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다른 예로써, 나는 부산문화재단의 ‘2023감만창의문화촌 입주예술가모집’에 공모한 적이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안무멘토링’ 등이었다. 젊은 안무자들과 만나 그동안 쌓인 나의 안무경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조언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 신청했다. 그런 의지가 재단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는지 통과되지 않았다. 심사평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도 알 수 없었으나 결국 세대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이나 소통과 통합의 의지가 전달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² 최상윤(2023). “부산예술회관의 태동과 그 책무”(『예술부산』 통권 72호, 2022). 『예술문화에의 불멘소리와 헛소리』, 세종출판사, 97.

³ ibid.

노인 천만 시대 노인의 역할을 찾고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원봉사가 있다. 청년과 더불어 갈 수 있는 노년의 한 역할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원로 예술인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이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추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봉사활동 관련 일을 노인에게 찾아줄 수 있다면 노인의 역할이 좀 더 풍성해지고 지역사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의 노년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하고, 생산 가능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역할을 담당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노인을 의존적 존재, 사회에 짐이 되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노년의 역할 강화를 우선으로 지역의 세대 다양성을 위한 소통과 통합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젊음을 찬미하는 문화적 추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동양에서 인정하는 나이든 사람의 지혜와 성숙된 아름다움 그리고 축적된 풍부한 경험은 젊음을 찬미하는 문화권에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나이든 사람의 노련함과 날카로운 지혜가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생산성만 중요시되는 태도의 사회는 우리 삶을 인간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판단이 물질의 풍요보다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에 더 놓일 때 우리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춤추는 도로시, 어디까지 왔니?

- 베리어프리,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대표 허경미 인터뷰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오후세시프리퀀시(출처 :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첫 번째 법은 1981년 제정한 「심신장애자특별법」이었다. 이 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76회나 거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이 장애인의 문화 참여에 대한 보편적 복지 보장이라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촉진을 보장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예술에 있어 장애인들이 향유자를 넘어 적극적인 창작활동의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용예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예술인 육성프로그램>이 그것이다. 2019년 이 사업에 선정되어 활동을 시작한 베리어프리 무용단,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허경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소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활동에 대해 많은 분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시게 되었어요. 편의상 이 글에서는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를 도로시로 부르겠습니다. 도로시는 라이먼 프랭크 바움(Lyman Frank Baum)이 쓴 『오즈의 마법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용단 이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미 참여자들을 만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 중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보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때 발달장애인 참여자 한 분이 노란 선(도로선을 의미)을 따라왔다고 하셨어요. 그 대답을 듣자 문득 오즈의 마법사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도로시가 친구들과 노란 벽돌길을 따라 에머럴드시를 찾아가며 모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만남을 통해 멋진 도전과 경험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무용단 이름을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로 짓게 되었습니다.

소윤 도로시는 장애, 비장애예술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단원이신가요? 아니면 전문가인 비장애예술인들이 교육자의 역할을 하시는지요?

경미 3년간의 <장애예술인 육성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장애인들이 교육받는 위치였지만 지금은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고유번호증도 받았어요. 현재 발달 장애인 한민기, 김유진, 이은애, 이지연, 정민수와 비장애인 박은지, 엄효빈, 정승환, 김민찬(2019~2021활동)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윤 도로시의 주요 활동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경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은 한 해에 4개월 정도씩 교육활동을 가졌습니다. 그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 때라 활동에 제한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저기 갈까?>라는 작품으로 댄스 비디오편집을 제작하여 상영회를 가졌구요. 2021년에는 작품<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장애예술 테이블토크에 초청되어 공연하였고 또 작품<약속: 관계하다>로 부산문화재단의 장애예술 쇼케이스 공연을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2022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S) 공모에 선정되어 고양아람누리극장에서 공연하였고요. 그 외에도 굿네이버스 주관 ‘미드써머 드림’,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 ‘함께 가는 길’에도 초청되어 공연하였습니다.

소윤 2019년에 시작한 데 비해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활동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미 변화해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시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일반 교육 참여자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할 것인가 같은 질문이었지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인 줄 알고 오셨다가 나중에는 신체 움직임과 태도가 무용 예술 창작가로 변화해 가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움직임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것과 표현의 수용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강사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대해야 한다는 일종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거리감이 점차 좁혀졌습니다. 또 교육자로서의 역량, 즉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INTERVIEW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도움을 받았고, 성장시키려고 했는데 스스로 성장하게 된 것이예요.

소윤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이나 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쉬운 일 같지만은 않기도 해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요.

경미 처음에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신체장애에도 유형이 있듯이 발달장애에도 유형이 다 달라서 그 특성에 맞는 수업을 이끄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높았어요.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단원들과 함께 수업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폭력성이 드러나는 단원도 있었는데 그게 그 유형의 특징이었던 거죠. 우리는 수업의 규칙을 정해서 풀어갔습니다. 또 창의성이 수업의 목적인데, 그 바탕이 되는 지적·정서적 상상력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동작의 동기 부여에 있어 비장애인 수업과는 좀 달랐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춤을 통해 정서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좀 더디고, 축적이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인 만남이나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군요. 혹시 장점이나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미 작은 규칙들을 굉장히 잘 지키십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춤의 표현에 있어 규칙들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체 움직임이 힘들 것이라고 짐작하고 가능한 덜 움직이는 동작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규칙을 정해 달리기를 했는데 정말 빠르게 달리시는 겁니다.

소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선입견, 즉 정신적·신체적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비장애인들의 인식적 한계였을 수도 있겠군요.

경미 맞아요. 장애인의 고유성 안에서 동작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 고유성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분들을 가둔 것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동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소윤 배리어프리 무용단 활동에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나 지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에 있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비용은 지원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금이 없는 동안 비장애인 단원들의 노력으로 지탱은 했지만 모두 프리랜서 예술가인지라 유지에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있어 단순한 배려나 온정주의보다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시나 재단 행사 때 장애예술인 출연에 대한 쿼터 제도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분량은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지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이 늘어나게 되면, 특수성이 돋보일 수 있고, 수요도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에 대해 보다 섬세한 분류와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관계하다(출처 :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

소윤 부산문화재단은 장애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온그루와 두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시는 두구의 입주 단체로 활동하십니다. 두구 활동이 도로시의 성장에 도움이 되시는지요?

경미 두구라는 공간이나 지원이 있어서 좋으나 너무 외진 곳에 있는 점이 아쉬워요. 또 연습실이 없고 사무실만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창작공간을 마련해준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소윤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도로시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참,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도로시의 춤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미 장애인 단원들은 춤의 작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존감이 누구보다 높은 편이에요. 독립된 무용단 운영에 대한 고민, 예술적 성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의 친구들은 스스로 지능, 마음, 용기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였다. 그들은 숏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란벽돌길을 따라 마법사 오즈가 사는 에머랄드시에 당도했다.

노란 선을 따라가는 무브먼트 프로젝트 도로시는 어떤 곳에 다다르게 될까. 아니 어떻게 가게 될까. 분명 녹록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장애는 또 다른 능력이며, 예술에 있어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의미 없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는 고민과 땀 흘리는 노력의 시간이 그 길을 채워갈 것이다. 우리 도시의 실질적인 응원과 지원이야말로 바로 그 춤길의 '노란 선'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기꺼이, 노란 선이 되어 줄 것!

사상 이주민 반상회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이주가 우선이다.

‘이사’라는 말과 ‘차별’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결합되기 매우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 말은 너무 쉽게 결합되어 폭력이 된다. 텃새라는 말이나, 지역감정이라는 말, 굴러온 돌과 박힌 돌의 비유가 그렇다. 그런데 이런 말은 모두 ‘정착’을 중심으로 고안된 말이다. 과연 우리 삶을 정착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을까. 아브라함은 칼데아 우르 땅을 떠났고, 부처도 자기 왕국을 떠났다. 주몽도 그랬다. 단군 신화 역시 다르지 않다. 인류의 역사가 떠남에서 시작한다는 것, 떠나기 전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기록도 없다는 것은 정착 인류의 역사를 ‘이주’ 중심으로 봐야한다는 뜻 아닐까.

이주는 새로운 것과의 대면을 전제로 하니, 혼종성과 다양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하늘 사람과 땅 사람, 신과 짐승이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그렇다. 마치 이방인을 환대한 문화가 역사를 새로 쓸 자격이 있는 듯, 거의 대부분의 신화와 역사는 이주와 섞임(hybrid)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삶의 창조로 시작한다. 인류의 역사가 모두 이런 식이라면 이주민이 아닌(이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이주가 있기에 정착이 있다. 이주가 정착에 우선한다. 부산도 이를 증명한다.

부산, 이주민의 도시

이주하는 사람은 새롭고 더 나은 삶을 꿈꾼다. 이주와 거주의 자유를 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다. 이주가 존엄하고 행복해야 인간적 삶이 완성된다. 부산의 경우를 보자. 부산은 실로 이주민의 도시다. 관문 도시인 탓에 부산에 들고나는 사람들은 많았다. 해방 후 귀환한 사람, 전쟁 중에 피난 온 사람, 산업화 시대에 이촌향도한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부산에는 유독 향우회가 많다. 부산을 제대로 보려면 이주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



중국-대만 이야기(출처 : 천아름)



네팔 이야기(출처 : 천아름)

다양성과 경계예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문화 다양성은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한다. 부산이 이주민의 도시라는 점은 그만큼 창조적 잠재력이 많다는 뜻이다. 그 잠재력이 부산 사상 구에 거대한 복류(伏流)가 되었다. 이 복류를 시추해, 현대의 물꼬를 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계 예술(border art)의 사례를 보자. 북-중미 경계 예술가들은 미국 국경 봉쇄 정책의 문제를 비판하는 예술 작업을 선보였다. 그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박힌 말뚝 사이에 시소를 설치해, 양국 어린이들이 서로 마주보며 시소를 타도록 했다. 어떤 이는 인간 대포가 되어 국경을 넘었다. 이들은 이주가 차별과 폭력을 돌파하는 생의 도약이며, 인권은 국경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부산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



몽골 이야기(출처 : 천아름)

사상 이주민 반상회

현재 사상에서는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 진행하는 <이주민 반상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사상구가족센터>, <이주민문화센터> 등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반상회를 열었다. 중국, 대만,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한국 사람들이 격주로 모여 자기 나라의 명절과 축제를 통해,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아시아 절기 달력(예상) 같은 콘텐츠가 되어 배포될 예정이다.



필리핀 이야기(출처 : 천아름)

내 안의 오리엔탈리즘

이주민 반상회는 이주민이 발화자가 되어 선주민이 이주민의 문화를 경청하는 대담형 강좌다. 8월 3일이면 8번째 미얀마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강좌를 운영하면서, 나는 아시아가 너무나 비슷하지만 너무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새해를 기념하는 것만 해도 그랬다. 양력 1월 1일을 새해로 삼는 나라, 양력과 음력 모두를 새해로 삼는 나라, 음력 1월 1일을 새해로 삼는 나라, 심지어 새해가 양력으로 4월인 나라 등, 각 나라의 전통과 풍습이 너무 달랐다. 하지만, 이날 조상을 기리고, 가족을 만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점은 너무도 비슷했다. 나는 왜 이토록 아시아를 몰랐을까. 가까이 있어서 여행을 가도, 나는 정작 서구에 비해 아시아를 너무 몰랐다. 심지어 굳이 아시아를 알고 싶어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시아에 사는 오리엔탈리스트였다.



캄보디아 이야기(출처 : 천아름)

타인이라는 거울

이분들이 일깨운 사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분들이 명절과 축제를 강의하면서 하나 같이 한국을 노점국가라고 했다. 부산과 한국에 '축제'는 많지만, 정작 '축제다운 축제'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 축제문화가 음주라는 문화 획일성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이분들이 말하는 축제는 정말로 다종다양했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는 섬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각자 자기만의 축제를 연다. 필리핀은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나라다. 테스 씨는 우리더러 필리핀 갈 때 휴양지만 가지 말고, 마을로 찾아가 축제에 참여해보라고 권했다. 내게 그 말은 필리핀을 단순히 관광지로서만 소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 필리핀 사람과 만나고, 접촉하고, 소통하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 외에도 네팔의 물감 축제, 몽골의 나담 축제, 중국-캄보디아의 용선 경주 및 배 축제 등, 이분들이 말하는 자국의 축제는 한국의 축제와는 판이했다.

한국의 축제는 어쩌다 저리 양상한 축제가 되었을까. 한국사회는 『피로사회』라는 독일 발 서적에 『과로사회』로 답한 바 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이 과로사로 귀결된 상황에서,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은 이미 먼 이야기가 되었다. 놀이가 양상해지다 못해 사라진 상황에, 이분들이 경종을 울렸다. 한국의 강박적 상황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는 폐쇄적 공포와 배제의 폭력으로 이어진 건 아니었을까. 많은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환대는 낯선 접촉을 통해서

차이와 만나지 않으려는 폐쇄적 사회에 폭력이 일기 마련이다. 제주에 예멘 난민이 방문한 후, 한국에 예멘 난민 혐오 담론이 판을 칠 때, 예멘 난민을 자기 호텔에 무상으로 받아주었던 어느 호텔 사장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 사람들은 예멘 난민을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호텔을 나간 후, 제주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숙박비를 보내오던 예멘 사람들의 면면을, 정작 혐오자들은 모를 것이라던 그분의 말. 접촉 없이 이해와 포용은 없고, 환대도 없다. 소통을 두려워하고, 접촉을 피하는 데서 편견과 혐오가 생긴다. 여기서 폭력이 꿈틀거린다. 사상의 이주민 반사회는 이주민과 함께 이 폭력의 걸을 돌파하고 새로운 지역 이야기를 써나가려는, 부산 문화다양성의 교훈이 되려 한다.



중국-대만 이야기(출처 : 천아름)



미얀마 도뚜야 강사(출처 : 천아름)

젠더 다양성과 성별영향평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 리뷰

문재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여성학 협동과정 교수

「성별영향평가법」의 출발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성별영향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법」은 1995년 UN 세계여성대회로 거슬러 가는데, 북경 UN 세계여성대회는 성평등 실현 전략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설정하여 각국이 취해야 할 구체적 내용이 담긴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강령에 우리나라도 서명하면서 그해 12월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이후 정책을 수립, 시행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에 시범 적용을 거쳐 2005년부터 점차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1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별법안으로 「성별영향평가법」이 만들어지고(참고로 2010년 여성가족부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는 제·개정 법령과 성평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계획과 사업을 수립할 때 반드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초반의 우여곡절 끝에 이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2014년 개정 이후로 보면 될 것이다. 이때부터 제도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젠더 거버넌스를 주목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를 만들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간을 거슬러 보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정책, 기관에서 ‘여성’, ‘성평등’한 의제의 등장이 그리 길지 않음을 상기시키고자 함이다. 그리고 여전히 ‘성평등한 세상’을 모색 중이다.

이분법적 성의 지리(geographies of sexualities)를 넘어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23)가 발간되었다. 보고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 및 결과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 유형별로는 법령 18개 과제, 사업 21개 과제로 총 39개 과제,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기관별 정책 개선 이행점검과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추진현황에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개선과제 도출률 증가 등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이 제고됨.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이행률이 높아짐. 셋째,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제 수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증가함. 이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2022년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은 전반적으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대상이 되는 사업은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 해당된다. ‘여성의 지위 향상,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전제 사항이다. 중앙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워낙 방대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작업이라, 이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 친절한 보고서는 아니다. 더욱이 모든 사업들이 계량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각 기관, 지역, 주체들의 맥락과 특이성을 읽어낼 수 없는 점도 여전히 불편하다.

여러 정책사례에서 흥미로운 점을 예를 들어 보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민 인식 조사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계획을 명시하였으며, 문화예술체계 및 보건의료체계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한 도시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의문은 모든 시민과 양성평등의 연결이다. 양성평등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시민들은 참 모호하다. 각 지자체들(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이르는)의 정책개선 이행 사례들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에서 이구동성으로 중요한 목표점으로 두는 성평등의 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보고서에 제시된 바, 성평등이 남녀, 양성에 국한되어 있음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젠더 다양성의 주소들은 보다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성, 젠더, 인종, 계층, 지역을 교차하면서 이분화된 성의 지리(geographies of sexualities)를 넘어서는 일임을 주변의 거리 곳곳에서 만난다.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복수의 섹슈얼리티의 지도는 언제쯤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될까?

성평등 실현은 일상생활 혁명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성주류화나 성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전략이나 도구라는 취지와 목적에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이며, 이러한 질문 앞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과제 수만큼 자신있는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없는 현실에 곤혹스럽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성주류화에 입각한 정책들이 들어선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얻는 데까지 131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처럼 세상의 패러디임을 바꾸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가령,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乳兒車)’로 변경하는(『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은 단순히 네이밍의 변경이 아님을 안다. 성별고정관념을 깨고, 이를 일상화하겠다는 실천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자체 위원회 구성에서 성별균형이 단순히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와 의결권의 확보를 통한 젠더 정의(gender justice)에 닿아 있음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처럼 일상의 실천과 연계된 정책들을 발굴, 의미화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이 보고서는 계량화된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를 확보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및 사회안전망 확대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차별적 요인 개선 ▲일·생활 균형 확산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성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 반영 및 평가 기준 개선 등이다. 이러한 범주의 내용 안에서 ‘여성’만을 지칭하거나 여성만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적 ‘여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제도는 언제나 입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세계 안에서 수행적 실천에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눈에 띄는 것은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생활체감형 정책이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성차별 문제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한 제안을 생활체감형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우체국 편의시설, 월경건강 및 권리, 피임, 성매매 감염병, 임신전 검사, 난임 지원, 임신 중단 등에서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국민공모’, ‘생활체감형’ 등을 내세워 일상생활 속 성평등 구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태도의 긍정성은 인정하나 보다 더 미시적인 영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분석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을 통해 도출된 개선책으로 성별영향평가 자체교육 참여 확대와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이 다소 용두사미 격이다. 306개 기관, 27,109개 과제의 추진현황, 이행 과제들을 검토하면서 내린 진단이라기에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다.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겠지만, 여성주의적 기획과 실행이라는 입각점에서 현재 성별영향평가가 반복하고 있는 전형성을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제도와 운영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경험주의적 연구를 보완하는 등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조는 그대로, 출생률은 반전?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를 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80을 기록, 전체 146개 국가 중 105위를 기록했다. 경제참여·기회, 교육 부분에서 114위, 104위를 기록하고 정치부분에서도 88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보고 앞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운영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대책이 ‘성평등’에 있다. 성평등은 구색,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러한 시각 위에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4. 07. ~ 08.

부산문화재단

환자와 예술가가 함께하는 Hospital Art 본격 가동(8.13)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환자와 예술가가 함께하는 Hospital Art를 위하여 다움병원, 좋은부산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장기치료,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제약이 있는 환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구축하고,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할 예정이다.

ESG캠페인 ‘한성1918에코패밀리챌린지’ 진행(8.5)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대상으로 ESG캠페인 ‘한성1918 에코 패밀리 챌린지’를 진행한다. ‘나만의 일상 속 기후변화 대응 챌린지 인증샷’을 찍어 메시지로 전달해 해당 게시물에 ‘참여완료’ 또는 ‘응원 한 마디’ 댓글을 작성하면 선착순 40명 대상 비건 삼푸바와 양모볼 증정한다.

지역 예술인 융자금 이자지원(7.22)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들의 금융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정 후 이자분에 대해 1인 최대 300만 원을 환급 지원할 예정이다.

단편영화 ‘산복이’ 제작 발표회 개최(7.17)

7월 19일 중구 모퉁이극장에서 생활문화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중 하나인 단편영화 ‘산복이’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다. 영화는 드라마 ‘왕초’, ‘호텔리어’ 등을 연출한 부산 출신 장용우 감독과 지역의 프로덕션, 부산 대학생들이 모여 함께 제작한다.

예비 장애인예술인 발굴을 위한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 추진(7.10)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포용 예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장애예술 커뮤니티 <그루-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예비 장애인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온그루’를 기반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참여자 중심의 운영 방식과 동료 학습 기회 제공이 특징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위한 경제·문화 컨버전스 포럼 개최 성료(7.9)

부산문화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7월 8일 ‘제5회 글로벌 허브도시 컨버전스 포럼’을 개최했다. 그간 포럼은 11개 혁신기관이 공동 참여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발전 전략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는데, 이번 5차 포럼은 ‘도시재탄생프로젝트 강요식, 다시 부산’이라는 타이틀로 경제와 문화 2가지 섹션으로 진행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7.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의 일환으로, 양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 교류를 통한 산업단지 내 문화예술교육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총 15억 국고 예산을 투입해 산업단지별 특색과 서사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대한민국 가을, 미술로 물들인다(8.14)

2024년부터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처음 개최한다. 축제는 광주-부산-서울에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9.7.~12.1.)와 부산비엔날레(8.17.~10.20.)를 비롯해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프(7.30.~8.25.), 서울아트위크(9.2.~9.8.), 키아트 서울(9.4.~9.8.), 프리즈 서울(9.4.~9.7.) 등 대규모 미술 행사를 통합·연계해 진행한다.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제공하는 전시연계 상품을 활용하면 입장료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7.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미술진흥법」과 같은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에는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 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30개 지역문화재단과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 이룰 협력방안 모색(7.24)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에서 전국의 광역·기초 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지역 문화예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5세 이상 고령층, 문화예술, 체육활동 참여할수록 더 행복해(7.3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고령층 문화누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에서는 국내 액티브시니어 고령층의 행복한 삶에 대한 해답을 밝힌다. 고령층의 문화누림 활동과 행복수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①여행, 관광, 나들이 경험 횟수, ②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 관람 횟수, ③ 자원봉사 활동 참여시간 등이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고령자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더 행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문화예술후원 인증 신청 접수 시작 (7.3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범적인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펼친 비영리법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9월 25일까지 받는다. 인증받은 단체와 기관에게는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 상 수여 ▲인증마크 활용 ▲언론홍보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문화향유 지원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비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아카이브 연계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 관설 미술공모전과 한국미술>(7.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방향 : 관설 미술공모전과 한국미술>을 주제로 한국미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한국 관설 미술공모전의 효시로서 일제강점기에 운영된 ‘조선미술전람회(1922-1944)’관련 기록물들의 DB구축과 데이터모델링을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서울문화재단

EBS, 서울문화재단과 문화예술 활성화 업무협약(7.22)

EBS는 서울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다. 공연 인프라를 활용해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강원문화재단

제3차 2024 강원문화정책포럼 개최(7.1)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은 도내 기초재단과 협력해 제3차 2024 강원문화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강원 문화예술축제의 친환경 전환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6 / 2024 Autumn

